

“예배는 자유롭게, 방역은 철저하게, 언론은 공정하게”

온양온천역광장에서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기자회견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대표 박만수 목사)는 지난 2월 28일(주일) 오후 3시 서울역 수경 대합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역 공공장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주요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예배회복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아산에서는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열렸다.

아산시 지역 교단연합회(대표 및 주요 기관과 교회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아산시 기자회견에서는 3월부터 일제히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언하고, 예배는 자유롭게, 방역은 철저하게, 언론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그동안 교회 예배에서는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정부 방역 당국의 정치방역의 모순과 교회 탄압의 부당함에 대해 성토했다.

비전인보위위원회 정현원 목사는 “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현안예배를 사수하고 더 이상 정부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방역총괄’ 방침의 한국교회의 대면예배에서 감염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발표 한 것과 관련 그동안 언론의 지나친 과잉 보도로 한국교회가 마치 감염의 온상인 듯 비



아산시민족복합회운동본부 대표회장 정동용 목사.

차진태 대해 언론은 자성하고 이제부터라도 공정하게 보도를 것”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족복합회운동본부 대표회장 정동용 목사는 “통제적으로 한국교회의 감염수치가 67%인데 언론의 그릇된 보도로 국민들은 43%인 것처럼 알고 있게 된 상황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며 이 같은 일례에 대해 언론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로 한국교회가 지난 1년간 철저히 방역에 힘쓰고 예배를 드린 결과이며 코로나

한국교회 예배회복 선언 기자회견 (아산)

“예배는 자율적으로, 방역은 철저하게, 언론은 공정하게”

2021년 2월 28일(주일) 오후3시 온양온천역광장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바이러스의 감염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자료를 근거로 명료하게 입증할 예정이다.

아산장로교회 임영숙 목사는 “목사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위헌으로서 중대한 문제이며 정부는 한국교회가 자율적인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현인 대표 박병희 권사는 “요즘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정책을 버리고 국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정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이지만, 감염과 처벌

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본질적인 문제인 정부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고 싶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정부는 방역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과 교회 예배를 위협적인 존재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며 오히려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키는 장외행위 할 수 있다. 또한, 감염위험을 숨겨 만드는 방역 당국의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현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동교회 박구현 목사는 “종교 관련은 67%였으나,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교회를 위협지역으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각인 시킴으로써 1월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감

염의 43%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것이 바로, 낙인과 차별의 효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호재가 나진 김형삼 목사(4남교회)는 “예배는 자율적으로 방역은 철저하게, 언론은 공정하게”를 외치고 31점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치고 이는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예배회복 선언서를 통해서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에, 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회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예측하지 않고 서로의 고유영역을 존중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증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대상이다. 이미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교회에만 엄격한 잣대를 매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엄연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방역당국의 그릇된 행위를 지적했다.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는 한국교회가 3월부터 일제히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을 엄중히 선언하고 앞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현장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교회와 자율적으로 예배의 회복에 힘써 달라고 역설했다.

◇지회간편문 강연내용 5면에



‘영월군 차별금지법 조례제정안’ 적극 저지

영월군기독교연합회장 유홍렬 목사 영월군수 만나 설득



유홍렬 목사

영월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유홍렬목사와 성기는 열린교회전경

영월군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월말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교단 강원동지회 차별금지법 유홍렬 목사를 선출했다.

회장에 선임된 유홍렬 목사는 임무과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월군이 영월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이라는 명목 아래 영월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찬반을 묻는 내용을 군청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노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위한 행보를 보인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신임회장 유홍렬 목사는 영월군이 추진하려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조례안 여성, 종교, 국가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 활동



을 보호하고 영월군이 지원한다는 내용 등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영월군기독교연합회에서는 신임회장 유홍렬 목사 주제 하에 대회를 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먼 단위 연합회장과 연합회에서 반대서명

과 교회를 초월해서 21교회 12개 기독교교단 체계 반대서명에서 나서 8백여 명의 성도가 참여하였다. 2월 2일에는 영월군기독교연합회장 유홍렬 목사를 비롯 임원진들과 영월군내 각 연합체 대표들이 영월군수를 만나 영월군 차별금지법 조례제정안의 그릇된 점을 설명하고 이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차별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 하다 보니 이 같은 불요불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자치단체의 행태를 잘 점검하여 이를 예방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상황 극복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

영남동지방회 월례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철식 목사)는 지난 2월 28일(토) 오전 11시 경주시 외동읍 모화공단에 위치한 한소망교회(담임 박기만 목사)에서 철저한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월례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병 퇴치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번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성기찬 목사(영아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신홍섭 목사(영남의밀교회)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한소망교회)의 수 1:5-9 말씀을 본론으로 ‘오직 한 길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계속해서 지방회 재무 권철식 목사(순복

음하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순복음만성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권철식 목사의 사회로 회원평론, 교단 지방회 보고, 광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회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식사교제를 생략하고 각자의 목장으로 돌아갔다.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담임)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생사복, 흥망성쇠로 인해 희로애락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격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때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는 남원중앙교회
서정복 담임목사 063625-0690

“예배는 자유롭게, 방역은 철저하게, 보도는 공정하게”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대표 박민수 목사)는 지난 2월 28일 (주일) 오후 3시 서울(덕수궁 대현문 앞)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0여 개 지역 공공장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예배회복운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었으며 아산시에서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렸다.

아산지역 기독교연합기관 대표 및 주요 기관과 교회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아산지역 기자회견에서는 3월부터 일제히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언하고, 예배는 자유롭게, 방역은 철저하

게, 언론은 공정하게를 함치며 외치며 그동안 교회 예배에서는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정부 방역 당국의 정치방역 모습과 교회 탄압의 부당함에 대해 성토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언자들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연 1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언론 보도

최근에 한국교회의 대면예배에서 감염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방역총괄반정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에서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근원지처럼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한국교회의 감염수치를 6.7%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의해 국민들은 43%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과잉보도입니까? 이것은 정치 예배가 아닌 모인이나 행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오해를 갖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독교 죽이기'의 정치방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공정한 보도가 생겼는데 일방적인 통계를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언론은 3월부터 시작되는 전국 교회의 현장예배 때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한국교회의 코로나 감염증 종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도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진동용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강연 2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이 없는 현장예배

예배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님을 경배하고 높이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예배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됩니다.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방역하고 현장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지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지난 1년간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고 예배를 드린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신앙의 위대성을 과학을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과학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3월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현장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배회복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신앙인으로서 한바름으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코로나 감염증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진학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무)

강연 3

통제가 아닌 자율적인 예배 회복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를 가진 국가와 종교는 협력의 관계이지 예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소라원 초대총 사울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이기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통제하여 10%, 30%, 30% 등의 참석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한방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우연으로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한국교회가 자율적인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회복을 위해 우리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예배회복이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임용석 목사(아산중앙교회)

강연 4

효율적인 방역정책과 경제 회복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방역정책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확진자수만 언론에 발표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는 방역조치에 철저하면 두려워할 감염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방역정책에도 공평을 기하고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었습니다. 정부 통제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인원이 통제되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확진자수는 늘어난 것 같지만 완치율은 98% 이상이라서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생안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완치율이 높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정부가 안정되도록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빛이 곧 1000조가 된다는데 언제까지 재난기금지원에 의존할 것입니까? 요즘 정부는 정책을 세우고 국민을 다독여 세운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정책을 버리고 국민들은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도록 합니다.

장현원 목사(보배로교회, 바른인권위원회 섬김이)

강연 5

정부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중국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국처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국민들의 청원에 무시했습니다. 자체제정들은 그러한 결정을 옹호하고라 정진 않았습니

다. 2020년 1월 설날에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마스크 등의 방역물자를 써달라 해했습니다. 그날에도 중국에 보내고 경정을 하므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10배가 뛰고,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월에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터졌습니다. 대구시관에서도 방역을 소홀히 하여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의 행사에는 방역 기준을 넘는 인원을 모아 행사를 갖는 광장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방역에는 너 나 가 있을 수 없습니다. 3월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긴장한 사투리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청와대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정부와 지자체에 한테를 보면서 대국민 사과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조처되는 것이지만, 감염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헌 대통령의 민주정부에 대한 연설을 기억이나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곽명희 권사(유학연 대표)

강연 6

감염피해자를 숨게 만드는 방역당국의 방역

2020년 5월 이태원 동상에서 클럽들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휩쓸던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원 게이 클럽들은 외국에서 온 동성애자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온 국내 동성애자들은 전국에 전파될 수 있었고 실제로 전국에 감염자가 확산했던 시간입니다.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80% 이상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전에도 총리와 방역당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판은 이들이 숨게 만든다며 방역에 방해가 된다는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장려한다고 각종 여행과 오락 쿠폰을 뿌려 줬습니다. 여기서 확진이 확산되자 정부는 8월 15일 광화문 방정부서로 참가한 사람들이 전국에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비난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정부는 언론과 안전장치를 통해서 교회 폐쇄요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과 대동령 지지자들에게서 교회 예배는 혐오와 증오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지자체자들은 코로나를 이용한 반정부세력에 대한 증오정기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강희송 목사(유구교회)

강연 7

2020년 코로나 감염자 현황 분석

2020년 코로나 감염자 6만여 명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순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확진자 접촉 1만5천여 명, 둘째, 지역신발 감염 1만여 명, 셋째, 기타 7900여 명, 넷째, 신원지 관련 5200여 명, 다섯째, 신원지 외 종교 관련 4천여 명, 여섯째, 요양병원 시설 3300여 명, 일곱째, 직장 3200여 명, 여덟째, 가족과 지인모임 2800여 명, 아홉째, 의료기관 2천여 명이었습니다.

종교 관련은 6.7%였으나,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교회를 위험지역으로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각인시킨으로서 1월 초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감염의 43%가 교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인과 차별'의 효과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말살할 때 했던 방법과 다름없는 평가가 나온 이유입니다.

산천수백명의 교회 관련 감염은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유지하는 예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1만여 명의 지역신발 감염이나 2800여 명의 지인모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배중 감염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예배 참석자를 20명, 10%, 30%로 제한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것은 종교인을 2등 국민화하는 낙인찍기와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규현 목사(연동교회)

한국교회와 함께 삼일운동의 애국애족 희생정신 계승 자기 갱신과 변화 이끌기 위해 최선 다해야

세기총 3.1절 메시지 발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삼일절 제102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동포(미·아·소포)와 함께 지금까지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상황에서 한국교회(가)다시 한번 이 민족의 등대와 같은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전 국민이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자 비폭력, 비무장의 항일 만세투쟁운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자결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되었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당시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했던 평범한 민중들의 자취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 날이 중요한 까닭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전국 국민의 1.5%인 30만 정도에 불과했으나 독립운동을 선도하였고, 열광하는 민족에게 소망을 심어주어 자주독립의 꿈을 일깨워 줬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수난 중인 민족과 함께 호흡한 교회였습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모두가 종교인이었고 그 중 상당수가 기

독교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3.1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대 사회적 영향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대외로 나아진 호감도 끌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연합단체도, 실력을 갖춘 학교도 없었지만 교회의 영향력은 지대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상경을 잃은 것이 교회생활의 전부였던 당시의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기총은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인 2019년 3월 1일에 '민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기념대회를 다수의 기독교연합기관과 수반의 크리스천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02주년 삼일절을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념식도 최소 규모로 진행되며,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자칫한 삼일절을 가볍게 하는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옵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그 날의 정신이 도화선이 되어 광

복을 이루었고, 이후 6·25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한글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자국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엔 민족 모두가 분열된 일이나 한 마음이 있었듯이 지금의 코로나 위기도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힘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을 확신합니다.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믿음의 선열들이 과거 민족과 사회를 이끄는 정신적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와 함께 삼일운동의 애국애족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이 민족의 사대적 사명인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열전 1:16)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한 자기 갱신과 변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의도대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밝고 생산적인 미래로 나아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3월 1일
(사)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조 일 래 목사

■ 목양신문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청년봉사선교회, GNTC-TV 라이브방송 통해 겨울수련회 개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의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성광자의 삶을 기원하고 적극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성경말씀으로 보람하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겨울수련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주제로 2월 19일(금)과 20일(토) 이틀 동안 GNTC-TV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결단하였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바른 신앙관, 성경관,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믿음을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 주제별표 등 여러 순서와 진행을 맡아 수고하는 청년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축복했다.

조용목 목사는 이어서 ‘성광자가 되어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청년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돋워 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특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변화를 받아 성도가 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용목 목사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의 원리와 성공적 삶의 스타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위하는 생활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런 수련회는 이틀 동안 청년봉사선교회 당회장 역자들의 강의와 설교,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주제별표, 성경말씀 만들기, 감사 찬양, 주제별 기도회 등의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이웃 사랑’, ‘성전별 모임’, ‘보이



는 라디오’, ‘은혜와 진리찬양 신곡 배우기’, ‘청년 콘서트’, ‘자신 콘서트’ 등 청년들이 생방송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다.

청년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수련회로 말씀충만, 성령충만한 은혜를 받고 서로 간에 믿음을 북돋우며 주

안에서 진밀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전송하였다.

그리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교단공과 신청

출판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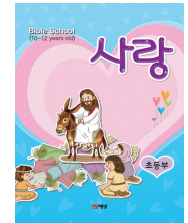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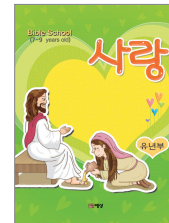
- ① Fax :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 농협 355-0053-3758-93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문의

전 화 :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도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알레르기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험함)

(“고려대학교 순음식 교수님 압력으로 세계특허”)

2)콜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래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사출원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르몬,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영성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할 수 없을(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핵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오성사랑교회 (담임 박흥열 목사)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 26)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믿음으로, 에스겔골짜기 마른뼈같은
한국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주역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정 책위 원장 조용욱 목사
은혜의진리교회



총 회장 신재열 목사
세김전교회



교 문 청무용 목사
대림별빛교회



자 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 직

임

전

국

지

부

장



예배부장
기영순복음교회
조명희 목사



선교부장
호백교회
김순자 목사



목자부장
전도복합교회
이복순 목사



동사부장
군영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정당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후계교회
김신애 목사



기획부장
월산교회
조영만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가리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동천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서울중앙지회의 지부장
김영순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1/2



팩트체크

비기독교인들도 보면 좋은 카드뉴스

교회는 코로나의 주요감염원이 아닙니다

"대면예배 감염 위험 사실상 없어" < 2021. 2. 1 아시아경제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 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대면예배는 "낮은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면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밀집도가 상당히 낮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전 방역 조치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 ✓ 질병관리청 발표 - 2020.1.20 ~ 12.30 종교시설 집단감염 비율 6.8% (타종교 포함)
- ✓ 2021.1.21 질병관리청 발표 - 모든 종교시설 집단감염 7.7% (타종교 포함)
- ✓ (2020.7 한국교회언론회 조사 기준) 이단교회, 오보, 오진단, 교회밖 2,3차 감염 등을 제외한 실제 교회를 통한 감염은 전체감염의 약 1.8% 수준 (2020.7.10 크리스천투데이)
- ✓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을 43.7% 정도로 인식 (2021. 2. 3 데일리굿뉴스)
- ✓ 국민이 교회발 감염에 대해 과장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 1. 29 연합뉴스)

2020년 보도

- 종교시설 정규 예배에서 확산하는 경우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수본 "종교시설 고위험 지정한다면 모든 종교에... 소모임 규제 논의" - 2020. 7. 2 뉴시스)
- 타 사회집단에 비해 교회 감염은 오히려 없는 수준
(“교회 감염의 팩트와 통계를 보라! 교회를 마녀사냥하는 진짜이유는?” - 2020. 6. 30 감리교바른신문)
- 교회감염 중 신천지 이증등록자에 의한 감염, 이단교회, 오진 등이 대다수
(“이단과 달리 개신교 예배로 인한 전파 극소수” - 국민일보 2020. 3. 24 /
“코로나19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 예배중단 요구의 법률적 문제” - 2020. 3. 22 크리스천투데이)
-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박양우 장관 "종교계 15일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을" - 2020. 3. 22 연합뉴스)